

2018국가직 9급 다책형

아주 자세한 해설, 재미있는 암기tip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짧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책형 문10)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① 독도: Dok-do
- ② 반구대: Ban-gudae
- ③ 독립문: Dok-rip-mun
- ④ 인왕리: Inwang-ri

문1)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책형 문1)

① 독도: Dok-do (X) → ‘독도’는 붙임표 없이 ‘Dokdo’라 쓴다. 또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없다.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남산 Namsan / 속리산 Songnisan / 금강 Geumgang / 독도 Dokdo / 경복궁 Gyeongbokgung / 무량수전 Muryangsujeon >

② 반구대: Ban-gudae (O)

◆ ‘반구대’는 ‘Bangudae’와 같이 붙여 쓰면 ‘방우대’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어 ‘Ban-gudae’로 쓸 수 있다.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중앙(Jung-ang: ‘준강’이라 발음할 수 있으므로) / 반구대 (Ban-gudae: ‘방우대’라 발음할 수 있으므로) / 세운(Se-un: ‘스’이라 발음할 수 있으므로) / 해운대(Hae-undae: ‘하운대’라 발음할 수 있으므로) >

③ 독립문: Dok-rip-mun (X) → Dongnimmun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연화교 Yeonhwagyo / 극락전 Geungnakjeon / 안압지 Anapji / 남한산성 Namhansanseong / 화랑대 Hwarangdae / 불국사 Bulguksa / 현충사 Hyeonchungsa / 독립문 Dongnimmun / 오죽헌 Ojukheon / 축석루 Chokseongnu / 종묘 Jongmyo / 다보탑 Dabotap

④ 인왕리: Inwang-ri

◆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제주도 Jeju-do / 의정부시 Uijeongbu-si / 양주군 Yangju-gun / 도봉구 Dobong-gu / 신창읍 Sinchang-eup / 삼죽면 Samjuk-myeon / 인왕리 Inwang-ri / 당산동 Dangsan-dong

정답: ②

문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책형 문2)

‘언문’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간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16, 17세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①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②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③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④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문2)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2)

① 조선시대에는 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X)

◆ ‘결국 조선시대에는 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로 보아 답으로 순간 고를 수 있겠지만 글의 일부분만을 담고 있으므로 중심내용이라 할 수 없다. 중심내용이라 함은 글의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O)

◆ ‘ ~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로 보아 ‘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가 중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X)

◆ ‘ ~ 15세기 후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로 보아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로 답을 고를 수 있겠으나 이것은 글의 일부만을 포함하므로 중심내용이 아니다.

④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X)

◆ ‘언문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로 보아 정답이라 고를 수 있겠으나 이는 글의 앞부분만을 일컫는 것이므로 중심내용이라 할 수 없다.

정답: ②

문3) (가)~(라)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3)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라)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쓴다.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④ (라): ‘로써’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문3)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3)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쓴다. (O)

◆ 은: (조사)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국어 성적은 좋지 않지만)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꾸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 ‘수학 성적의 참 좋군.’은 다른 어떠한 것도 배제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티 하나 없는 깔끔한 문장이 된다.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O)

◆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라고 말했다. (O)

◆ 고: 종결 어미 ‘-다, -냐, -라, -자, -마’ 따위 뒤에 붙어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아직도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 아까는 술을 전혀 못 마신다고 하더니? / 아내는 나더러 낙엽 밟는 소리가 좋으냐고 물었다. >

◆ 라고: 받침 없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원래 말해진 그대로 인용됨을 나타낸다. < 주인이 “많이 드세요.”라고 권한다. / 그중 하나가 나서서 “내가 바로 홍길동이다.”라고 소리쳤다. / 조카가 나에게 “삼촌은 비 내리는 소리가 좋으세요?”라고 물었다. >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X)

◆ -면서: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므로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는 ‘멈추다’와 ‘달려왔다’의 동시성을 가진다.

● -고: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오빠는 나에게 얼른 눈짓을 하고는 나가 버렸다. / 동생은 여행을 다녀오고부터 사람이 달라졌다. / 할머니께서는 상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 >

④ (라): ‘로써’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O)

◆ 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 그는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 or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 >

● 로써: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 < 쌀로써 떡을 만든다. > or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 꿀로써 단맛을 낸다. / 대화로써 갈등을 풀 수 있을까? / 이제는 눈물로써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 or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써 일곱 번째가 됩니다. /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

정답: ③

문4)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4)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 내용들로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이다.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쫄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의 인기가 시들 줄 모른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① ㉠ ② ㉡ ③ ㉢ ④ ㉣

문4)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4)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이다. < 재미있는 수학 선생님 >
㉡쫄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 재미있는 수학 선생님 >

◆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 수학 선생님의 아들 >

◆ 이 글은 재미있는 수학 선생님의 수업 방식으로 수학 성적이 좋아졌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는 수학 선생님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아들에 관한 것이므로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 재미있는 수학 선생님 >

정답: ③

문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5)

(가)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
구만 리 장천(長天)의 번듯이 걸쳐 있어
고운 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나)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 ①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 ②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
- ③ (가)의 ‘고운 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 ④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문5)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5)

- ◆ (가)는 정철의 시조로 고운 님(조선 선조)에 대한 연군의 정을 나타낸다.
- ◆ (나)는 임제의 시조 ‘무어별(無語別)’이다. 무어별(無語別)은 ‘말도 못하고 헤어지다.’는 의미로 아가씨는 좋아한다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좋아하는 임과 이별하여 슬픔에 잠겨있다.

①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X)

◆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달이 떠 있는 공간이다. 긴 하늘에 어디든지 떠 있는 달이 되어 임이 어디에 가든 따라가 비추며 언제나 임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나)의 ‘문’은 아가씨가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이별한 후 슬픔의 흐느낌이 새어나갈까 봐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가씨의 마음이 담겨 있다.

②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

◆ (가)의 ‘나’는 마음으로 달을 만들어 임이 계신 곳을 비춰 임을 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 (나)의 ‘아가씨’는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 들킬까 봐 문 닫고 소극적으로 흐느끼는 장면을 엿볼 수 있다.

③ (가)의 ‘고운 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X)

◆ (가)의 ‘고운 님’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보고 있는 대상이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다. 화자는 임과 이별한 아리따운 아가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X)

◆ (가)는 내 마음을 베어 내어 달을 만들어서 멀리 계신 임을 비취 늘 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따라서 (가)의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달’은 임과 이별한 아리따운 아가씨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는 시어이다. 즉, 달은 (나) 작품의 배경이자 임을 더 보고 싶게 하는 슬픈 시어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문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6)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툭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뭇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쏜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짙어가는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 -

- ① ㉠ -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 -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하였다.
- ③ ㉢ -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였다.
- ④ ㉣ -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문6)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책형 문6)

◆ 광재우의 ‘사평역에서’(1983): 밤새 송이눈이 오는 겨울, 서민들은 사평역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며 톱밥을 넣은 난로에 불을 켜고 있음. / 배경은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 / 정적이고 고요한 분위기. / 현실에 대해 긍정적이고 순응하는 자세

① ㉠ - 여러 개의 난로가 지퍼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X)

◆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는 대합실 안에 있는 하나의 톱밥난로가 여러 개의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나타낸다.

② ㉡ -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하였다. (X)

◆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청색(청색의 손바닥)과 붉은색(난로의 불)의 대조적 색채 이미지는 알 수 있다. 하지만 ‘눈 오는 겨울 아름다운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톱밥난로 앞에서 차가운 몸을 녹이는 서민들의 고단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③ ㉢ -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였다. (X)

◆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는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시는 현실에 대해 긍정적이고 순응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④ ㉤ -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O)

◆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는 ‘호명’이란 낱말로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린다고 표현하였고,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지는 행위’는 화자가 슬픔의 정서를 눈물 흘리는 행위에 투영하였다.

정답: ④

문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책형 문7)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톡 똬똬했다. 장인에게 닭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푹푹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 김유정, 봄봄 -

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②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③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됃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④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

문7)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7)

◆ 김유정의 ‘봄봄’: 김유정이 지은 단편 소설. 판소리계 소설과 사설시조를 이어받아 농촌의 궁핍상과 순박한 생활상을 향토적 정서를 바탕으로 특유의 해학적 어조와 문체로 형상화하였다.

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O)

◆ ‘ ~ 번이 마름이란 욱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로 보아 마름의 특성을 호박개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하였다. < 호박개: 뼈대가 굵고 털이 복슬복슬한 개. 중국에 많이 분포한다. >

②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O)

◆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 욱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욱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욱보다 읍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로 보아 비속어(이놈의 장인님, 욱필이)와 존칭어(장인님)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③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됄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O)

◆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욱보다 읍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욱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로 보아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됄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④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 (X)

◆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로 보아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장인과 소작인 행태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여주기(showing) 방식’이 아니라 ‘말하기(telling)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문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8)

____(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를 이르기 위해 대한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 ① 協商(협상) ② 協助(협조) ③ 協奏(협주) ④ 協贊(협찬)

문8)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8)

協商(협상) (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를 이르기 위해 대한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① 協商(협상) (O): 協(화합할 협) 商(장사 상)

1)의미: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 / 둘 이상의 나라가 통첩(通牒), 서한(書翰) 따위의 외교 문서를 교환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약속하는 일. 또는 그런 약속 조약. 조약과 달리 국가 원수나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로 특정 지역에서 친화적 국제 관계를 맺을 때에 행한다.

② 協助(협조): 協(화합할 협) 助(도울 조, 없앨 서)

1)의미: 힘을 보태어 도움.

③ 協奏(협주): 協(화합할 협) 奏(아릴 주)

1)의미: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합주하면서 독주 악기의 기교가 돋보이게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

④ 協贊(협찬): 協(화합할 협) 贊(도울 찬)

1)의미: 힘을 합하여 도움. / 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

정답: ①

문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9)

-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 바랍니다.

문9)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9)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O)

1)校訂(교정): 校(학교 교) 訂(바로잡을 정). 발음: [교:정](긴소리)

a)의미: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

◆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을 가리키는 ‘校訂(교정)’은 ‘校(학교 교) 訂(바로잡을 정)’을 쓰는데, ‘校(학교 교)’에는 ‘木(나무 목)’이 들어가고 ‘訂(바로잡을 정)’에는 ‘言(말씀 언)’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목요일(木: 나무 목)까지 초고(草稿)를 校訂(교정)하여 책을 완성(完成)하라는 말씀(言: 말씀 언)이신가요?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X) → 交叉(교차)

1)交叉(교차): 交(사귄 교) 叉(갈래 차/작살 차)

a)의미: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 / 생식 세포가 감수 분열을 할 때에 상동 염색체 사이에 일어나는 유전 물질의 부분적인 교환 현상.

◆ ‘交叉(교차)’는 ‘交(사귄 교) 叉(갈래 차/작살 차)’를 쓰는데, ‘交(사귄 교)’는 그 자체로 쓰고 ‘叉(갈래 차)’에는 ‘又(또 우)’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그 남녀는 기사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叉(교차) 검토하다가 또(又: 또 우) 사귀게(交: 사귄 교) 되었다.

2)交差(교차): 交(사귄 교) 差(다를 차, 차별 치, 버금 채)

a)의미: 벼슬아치를 번갈아 임명함.

◆ ‘벼슬아치를 번갈아 임명함’을 의미하는 ‘交差(교차)’는 ‘交(사귄 교) 差(다를 차, 차별 치, 버금 채)’를 쓰는데, ‘交(사귄 교)’는 그 자체로 쓰고 ‘差(다를 차)’에는 ‘工(장인 공)’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공주와 사귀는(交: 사귄 교) 그 도자기 장인(工: 장인 공)은 자기 가족들을 交差(교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3)較差(교차): 較(견줄 교/비교할 교, 차이 각) 差(다를 차, 차별 치, 버금 채)

a)의미: 최고와 최저의 차. 흔히 어떤 기간 동안 기온이나 강수량 따위를 관측한 값의 최대와 최소의 차를 이른다.

b)예: 연교차(年較差), 일교차(日較差)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X) → 決裁(결재)

1)決裁(결재): 決(결단할 결) 裁(마를 재).

a)의미: 결정할 권한(權限)이 있는 상관(上官)이 부하(部下)가 제출(提出)한 안건(案件)을 검토(檢討)하여 허가(許可)하거나 승인(承認)함. ‘재가(裁可)’로 순화.

b)예: 시장님 決裁(결재)

★決裁(결재)에서 ‘재’자에는 ‘衣(옷 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시장님은 간담회 때 행사 옷(衣: 옷 의)까지 입고 決裁(결재)하셨다.

2)決濟(결제): 決(결단할 결) 濟(건널 제)

a)의미: 일을 처리(處理)하여 끝을 냄. / 증권(證券)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當事者) 사이의 거래(去來) 관계(關係)를 끝맺는 일.

b)예: 카드 요금 決濟(결제), 현금 決濟(결제).

★決濟(결제)에서 ‘제’자에는 ‘彳(물 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물(彳: 물 수)을 마시며 카드로 決濟(결제)를 하였다.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 바랍니다. (X) → 再考(재고)

1)再考(재고): 再(두 재) 考(생각할 고/살필 고). 발음: [재:고](긴소리)

a)의미: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 ≡ 갱고.

b)예: 그 일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므로 再考(재고)의 여지도 없다. / 그 문제는 한 번 더 再考(재고)하기로 합시다. / 그 계획에 대해 再考(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을 가리키는 ‘再考(재고)’는 ‘再(두 재) 考(생각할 고)’를 쓰는데, ‘再(두 재)’에는 ‘冂(멀 경)’이 들어가고 ‘考(생각할 고)’에는 ‘耂(늙을 로)’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더 **높기**(𡵓: 높을 로) 전에 **먼**(門: 멀 경) 친척을 방문하고자 하니 다시 한 번 再考(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음이의어**

◆ 在庫(재고): 在(있을 재) 庫(곳집 고, 성씨 사)

a)의미: 창고 따위에 쌓여 있음.

2)提高(제고): 提(끌 제, 떼 지어 날 시) 高(높을 고)

a)의미: 쳐들어 높임.

b)예: 생산성의 提高(제고) / 능력의 제고 / 이미지 提高(제고) / 이번 일로 군대의 사기가 提高(제고)되었다. / 세계적인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경쟁력이 提高(제고)되어야 한다.

◆ ‘提高(제고)’는 ‘提(끌 제, 떼 지어 날 시) 高(높을 고)’를 쓰는데, ‘提(끌 제)’에는 ‘扌(손수)’가 들어가고 ‘高(높을 고)’는 그 자체로 쓴다.

☺영보이 암기tip) 손(扌: 손 수)을 **높이**(高: 높을 고) 든 군인들은 건빵을 왕창 먹더니 사기가 提高(제고)되었다고 한다.

정답: ①

문10) ㉠~㉣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0)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우선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가 그 예이다. 한편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결합의 오류이고, 반대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분해의 오류이다. 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 단원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 고로 그 연극단은 훌륭하다.”를, 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은 일류급이다. 박 씨는 그 연극단 일원이다. 그러므로 박 씨는 일류급이다.”를 들 수 있다.

- ① ㉠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 ② ㉡ -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 ③ ㉢ -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 ④ ㉣ -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문10)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0)

- ㉠ 우연의 오류
- ㉡ 애매어의 오류
- ㉢ 결합의 오류
- ㉣ 분해의 오류

① ㉠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정언적 삼단 논법)

◆ 삼단 논법:대전제와 소전제의 두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진 연역적 추리법. 삼단 논법은 전제와 결론을 구성하고 있는 명제의 종류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정언적 삼단 논법, 가언적 삼단 논법, 선언적 삼단 논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정언적 삼단 논법이 대표적인 형식이다. 예를 들면 '새는 동물이다. 닭은 새이다. 따라서 닭은 동물이다.' 따위이다.

1)정언적 삼단 논법: 정언적 판단만을 전제로 하여 정언적 결론을 내리는 추리. 이를테면 '모든 동물은 죽는다.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하는 따위이다.

2)가언적 삼단 논법: 가언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삼단 논법. 'A가 B라면 C는 D다. A는 B다. 고로 C는 D다.'라는 식의 논법이다.

3)선언적 삼단 논법: 전통적 형식 논리학의 삼단 논법의 하나. 선언적 판단을 대전제로 하고, 소전제에서 그 선언지 가운데 하나를 긍정하거나 부정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추리 방법을 이른다.

② ㉡ -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애매어의 오류)

◆ '부패(腐敗)'라는 동일한 한 단어가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③ ㉢ -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 결합의 오류가 아니라 '분해의 오류'라 할 수 있다.

④ ㉣ -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 분해의 오류가 아니라 '결합의 오류'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문11)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 11)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문11)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1)

◆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로 보아 이 글은 **유추(類推)**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비교의 방식)

◆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과 인상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실성에 바탕을 둔 점을 알 수 있듯이 두 주체의 공통점을 이용한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분석의 방식)

◆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를 인물, 배경, 사건으로 ‘**분석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유추의 방식)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예시의 방식)

◆ 육두품 중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든 ‘예시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정답: ③

문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2)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 ①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 ②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 ③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 ④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문12)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2)

①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O) ◆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로 보아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②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X)

◆ ‘~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로 보아 고갱은 인상주의에 불만을 가졌고 인상주의가 더 단순하고 솔직하기를 열망했다.

③ 고희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O)

◆ ‘~ 반 고희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로 보아 고희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④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O)

◆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했다고 느꼈던 것이다.’로 보아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정답: ②

문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책형 문13)

-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
-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문13)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책형 문13)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 (O) = 좋은 것을

◆ 걸: ‘것’은 ‘것을’의 줄임말이다.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X) → 제3장의 or 제3 장의

◆ 제: 대다수 한자어 수사 앞에 붙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접두사는 뒷말과 붙여 쓴다. < 제일 / 제이 / 제삼 >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O)

◆ ‘-지’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할 때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 -지: (의존 명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 집을 떠난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O)

◆ ‘-차’: (의존 명사)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쓰여 주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말. < 입사 3년 차 / 임신 8주 차 /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

◆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정답: ②

문14) ‘깡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4)

-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 ① ‘깡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된다.
- ② ‘깡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 ③ ‘깡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깡꼬’로 발음된다.
- ④ ‘깡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깡찌’로 발음된다.

문14)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4)

① ‘깡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된다. (O) (교체 현상 & 비음화 현상)

◆ 교체 현상: 받침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깡]으로 발음된다.

◆ 비음화: 어떤 음의 조음(調音)에 비강의 공명이 수반되는 현상. ‘십만’이 [십만], ‘먹는다’가 [멍는다]가 되는 것 따위이다. ≒ 콧소리되기. < 비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ㄴ’, ‘ㄹ’, ‘ㅇ’ >

◆ 비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ㄴ’, ‘ㄹ’, ‘ㅇ’ 따위가 있다. ≒ 콧소리

◎영보이 암기tip) 비음을 내는 나무야 (ㄴㅁㅇ)

ㄴㅁㅇ야 ~ ㄴㅁㅇ야 ‘비음’을 내는 ㄴㅁㅇ야 ~ ㄴㅁㅇ야

② ‘깡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X) → 연음 현상

◆ ‘깡아’에서 받침 ‘ㄱ’이 ‘아’로 들어가 [까까]로 발음되는 연음 현상이다.

③ ‘깡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깡꼬’로 발음된다. (X) → 교체 현상 & 음절의 끝소리 현상 & 된소리 현상

◆ 교체현상: ‘깡고’에서 받침 ‘ㄱ’이 ‘ㄱ’으로 교체되고 ‘고’의 ‘ㄱ’이 ‘ㄱ’으로 교체됨.

◆ 음절의 끝소리 현상: ‘깡고’에서 받침 ‘ㄱ’은 [ㄱ]으로 발음하지 않고 [ㄱ]으로 발음함.

< 음절의 끝소리 현상: 우리말의 음절의 끝에서는 7개의 자음만이 발음됨.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ㅇ] >

◆ 된소리 현상: ‘깡고’에서 ‘고’의 ‘ㄱ’이 [ㄱ]으로 된소리가 됨. < 된소리 현상: (=경음화):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등불’이 [등뽇], ‘봄바람’이 [봄빠람]이 되는 것 따위이다. : 발사[발싸] >

④ ‘깡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깡찌’로 발음된다. (X) → 교체 현상 & 음절의 끝소리 현상 & 된소리 현상

◆ 교체 현상: ‘깡지’에서 받침 ‘ㄱ’이 [ㄱ]으로 교체되고 ‘지’의 ‘ㄱ’이 [찌]로 교체됨.

◆ 음절의 끝소리 현상: ‘깡지’에서 받침 ‘ㄱ’은 [ㄱ]으로 발음하지 않고 [ㄱ]으로 발음함.

◆ 된소리 현상: ‘깡지’에서 ‘지’가 [찌]로 발음되는 된소리 현상.

정답: ①

문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국가직9급 책형 문15)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설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 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 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이다.

- ①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 ②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한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 ③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 ④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문15)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책형 문15)

①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O)

◆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설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로 보아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

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할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O)

◆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로 보아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할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X)

◆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로 보아 포스트휴먼 개념이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라는 말은 다소 지나치다.

◆ 귀결(歸結):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름. 또는 그 결말이나 결과.

④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O)

◆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 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 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로 보아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문16)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6)

-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문16)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6)

- ◆ 상보(相補) 반의어 - 두 낱말의 중간 상태가 불가능한 반의어 < 살다 - 죽다 /
- ◆ 정도(程道) 반의어 - 두 낱말의 중간 상태가 가능한 반의어 < 높다 - 낮다 >
- ◆ 방향(方向) 반의어: 맞선 방향으로 이동하여 대립하는 쌍. < 위 - 아래 / 남편 - 아내 >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X)

- ◆ ‘크다/작다’의 경우는 정도 반의어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중간 상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해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O)

- ◆ ‘출발/도착’의 경우는 ‘방향 반의어’로, ‘출발하지 않았다’라 부정해도 ‘도착하지 않았다’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O)

- ◆ ‘참/거짓’의 경우는 ‘상보 반의어’로 ‘참’이 아니면 ‘거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O)

- ◆ ‘넓다/좁다’의 경우는 ‘정도 반의어’로 ‘넓다’는 ‘좁지 않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문17)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7)

말썽을 ㉠슬쩍리 하디 天命을 疑心히실씨 꾸므로 ㉡뵈아시니
놀애를 부르리 ㉢하디 天命을 모르실씨 꾸므로 ㉣알외시니

(말썽을 아될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 용비어천가 13장 -

-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 ②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 ③ ㉢에서 ‘-디’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 ④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문17)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7)

-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X)
 - ◆ ‘-이’는 ‘아될 사람’에서 ‘사람’을 나타낸다.(주격 조사 ‘ㅣ’는 생략되었다.)
 - ◆ ㉠슬쩍리: 아될 사람
- ②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X)
 - ◆ ‘-아시-’가 아니라 선어말 어미 ‘-시’가 붙어 ‘뵈아시니’가 된 것이다.
 - ◆ ㉡뵈아시니: 재촉하시니 < 뵈아다: ‘재촉하다’의 옛말. >
- ③ ㉢에서 ‘-디’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X)
 - ◆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으로 보아 ‘이유’가 아니라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 ◆ ㉢하디: 많지만(=많지마는)
 - ◆ -지마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지만: ‘-지마는’의 준말 >

- ④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O)
 - ◆ ‘알리시니’로 보아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임을 알 수 있다.
 - ◆ ㉣알외시니: 알리시니
 - ◆ 알리다: ‘알다’의 사동사.

정답: ④

문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8)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습을 본뜬 음식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땅속에서 파낸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백제는 만월(滿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라서 다음 날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반달이 아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빚어 즐겨 먹었다.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둥근 원탁에 온 가족이 모인 것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

- ① 삼국사기 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 ②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 ③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 ④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문18)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8)

- ①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X)
 ◆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라서 다음 날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로 보아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단지 점술사가 예언한 것에 불과하다.
- ②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X)
 ◆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로 보아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란 말은 알 수 없으며 단지 월병은 한국의 비빔밥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음식일 뿐이다.

- ③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O)
 ◆ < ‘백제는 만월(滿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두고 ~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로 보아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X)

◆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로 보아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문 20.]

잔을 찌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였다. 이윽고 한 중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중이 웃으며 왈, “평생의 낮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비록 옳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소유가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열여섯에 급제하여 줄곧 벼슬을 하였으니 동으로 연국에 사신을 갔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

중이 웃으며 왈,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이 왈,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리오?”

중이 왈,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나뇨?”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 김만중, 구운몽 -

문19)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9)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문19)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19)

◆ 김만중의 ‘구운몽’: 조선 숙종 때에, 문인 김만중이 지은 장편 소설. 육관 대사(六觀大師)의 제자인 성진(性眞)이 양소유(楊少游)로 환생하여 여덟 선녀의 환신인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고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나 깨어 보니 꿈이었다는 내용이다. 인간의 부귀영화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교적 인생관을 주제로 하고 있다.

㉓ ㉠ → ㉡ → ㉢ → ㉣

- ㉠ 십 년을 같이 살던 일 < 십 년을 같이 살던 과거의 일 >
- ㉡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 토번을 정벌하기 전의 일 >
- ㉢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 < 토번을 정벌할 때의 일 >
- ㉣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 현재에 일어난 일 >

정답: ㉓

문20)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국가직9급 다채형 문20)

- ①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 ②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 ③ ‘승상’은 ‘중’이 여덟 남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
- ④ ‘승상’은 능파 남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문20) 정답 및 해설 (2018국가직9급 채형 문20)

①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O)

◆ <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파 남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로 보아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X)

◆ < 중이 왈, “어렵지 않으니까.”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나뇨?” >로 보아 중이 돌 지팡이로 나간을 두어 번 친 후에 꿈에서 깨게 된다.

③ ‘승상’은 ‘중’이 여덟 남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 (X)

◆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남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로 보아 ‘승상’은 ‘중’이 여덟 남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는 내용은 알 수 없다.

④ ‘승상’은 능파 남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별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X)

◆ 이 글로 보아 ‘승상’은 능파 남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별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는 내용은 알 수 없다.

정답: ①

- 영보이 저서 -

◆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한자 & 고사성어 한권 >

★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한자 & 고사성어 본권 >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수정판) < 판매 중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